

어빙 하우스 투어 - 한국어

어서오세요, 남부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어빙 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빙 하우스는 1865년에 지어졌으며 어빙 가족이 1950년까지 거주한 곳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집을 건설하는 데에는 \$10,000가 들었는데, 이는 매우 부유한 사람의 연봉과 동등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빙 하우스가 세워진 부지는 윌리엄 어빙이 클락슨 씨로부터 \$4,000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전에 아이빙 가족은 빅토리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민지 시대의 주택은 신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윌리엄 어빙 선장은 1816년에 스코틀랜드의 덤프리스셔 지역 애년에서 태어났습니다. 윌리엄은 15세 때 선원으로 처음 바다로 떠났으며 19세에는 일등 항해사로 승진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자신의 배의 선장이 되었으며 1849년에는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결국 어빙 선장은 오리건에서 포틀랜드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제인 딕슨을 만났습니다. 1851년 9월 27일 결혼 당시 어빙 선장은 38세였고 엘리자베스는 18세였습니다. 이들은 오리건에서 네 명의 자녀 (메리(1852.12.25), 존(1854.11.24), 수잔(1857.3.10), 엘리자베스(1859.12.29))를 낳았으며, 1859년 빅토리아로 이사한 후 5번째 자녀 넬리(1863.12.12)를 낳았습니다. 가족은 카리부의 골드러시를 따라 빅토리아로 이주하였고, 어빙 선장은 뉴웨스트민스터에서 예일까지 프레이저강을 따라 선박을 운영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어빙 선장은 금광 채굴자들을 위해 프레이저강을 올라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패들 휠(외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결과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빙 하우스 이야기

1862년에 어빙 선장은 새로운 선미 외륜기선인 '릴라이언스'라는 이름의 선박을 출시했습니다. 릴라이언스는 빅토리아에서 개시되었습니다. 기념행사에서 어빙 선장은 육아에 있어서 조금은 풀어놓은 듯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8세의 존 어빙도 참석했는데, 그는 자유롭게 축제 분위기와 샴페인을 즐겼습니다. 그 결과 존은 상당히 술에 취하게 되어 아버지의 직원 중 한 명이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상태의 존을 보자 어머니 엘리자베스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는 존이 취한 상태라는 것을 엘리자베스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1872년 56세의 나이로 윌리엄 어빙 선장은 양측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은 8월 30일에 어빙 하우스 안에서 열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그 집에서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1885년에 엘리자베스는 언제나 자신의 고향으로 여겼던 오리건 포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윌리엄 어빙 선장의 유일한 아들인 존은 17세의 나이로 1872년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았습니

다. 존 어빙은 1883년 6월 12일에 빅토리아에서 제인 먼로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윌리엄 아렉산더라는 이름의 아들 한 명을 포함해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윌리엄 알렉산더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1916년 솜강의 알버트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빙 가문의 부계 혈통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메리 어빙은 1874년에 토마스 래서 브릭스와 결혼하였으며, 1884년 10월 3일에 그녀의 형제인 존이 주최한 공공 경매에서 어빙 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소유권은 재산법에 따라 재산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양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브릭스 부부는 이 집에서 아홉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들의 막내딸인 나오미와 마누엘라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1950년에 이 집을 도시에 판매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 이야기

1857년 예일에서 금이 발견되자 전 세계에서 행운을 좇는 많은 사람이 브리티시 콜롬비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 북아메리카 서부에는 섬인 빅토리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본토에 식민지가 없다는 것은 영국이 이제 매우 가치 있는 땅으로 인식되는 이 지역에서 군대나 혹은 식민지적 존재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국은 만약 본토에 존재감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 지역을 합병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은 자신들의 통제와 야망을 이 지역에 행사할 수 있는 본토 식민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 도시 위치는 더비(현 포트 무디)로 할 계획이었지만, 리처드 클레멘트 무디 대령이 강 입구에서 항해를 하다가 가파른 비탈과 나무가 많은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이 순간에 그는 새로운 식민지를 더비 대신 그곳에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은 전략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만약 미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도 쉽게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 클레멘트 무디 중령은 영국 왕립 공병대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분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왕립 공병대의 주요 임무는 뉴웨스트민스터의 건설과 다른 도시 지역의 조사, 도로 건설과 유지 보수, 그리고 금광 지역의 치안 유지 역할을 포함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분대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었던 곳에서 더 강의 상류에 있는 캠프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 캠프가 바로 새퍼튼(Sapperton)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유래입니다. 새퍼튼은 왕립 공병대가 작전을 수행했던 캠프 지역 주변에 형성되었습니다. 새퍼(Sapper)는 중세 이래로 영국의 군사 기술자를 이르는 용어였습니다. 새퍼라는 용어는 그들의 임무가 성벽의 힘을 약화시키는(sap) 것이라는 개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병들은 때때로 성벽 아래로 파 놓은 터널에서 돼지기름을 불태우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응접실

작은 응접실은 건물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방에 대해 눈에 띄는 첫 번째 점

은 이곳이 꽤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은 어빙 가족이 인상을 주고 싶은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데 사용하는 방입니다. 이 방은 가족의 가장 호화로운 가구와 소지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가족사진들이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방에 들어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벽난로 위에는 (가짜 대리석 마감이고 실제로는 슬레이트로 만들어진) 윌리엄 어빙 선장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빙 선장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의 딸 메리 브릭스의 결혼식 당일의 모습입니다. 어빙 선장 오른쪽에는 토마스 래서 브릭스의 사진이 있습니다. 벽난로 오른쪽에 위치한 벽에는 윌리엄 어빙 선장과 부인의 결혼식 당일, 그들의 아들 존 어빙, 그리고 어빙 부인과 네 딸의 사진이 있습니다. 벽난로 왼쪽에 위치한 벽에는 토마스와 메리 브릭스와 그들의 아홉 자녀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빙 가족이 이 집으로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벽은 석고로 마감되어 있었고 벽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리 브릭스가 1887년에 집을 개조한 후에야 벽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벽지는 1887년의 것 그대로입니다.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가구는 아이빙 가족과 브릭스 가족의 원래 가구입니다. 이 방의 카펫 역시 1887년의 것입니다.

유물에 대하여

존 프랭클린 초상화- 이 초상화는 유명한 북극 탐험가인 존 프랭클린의 초상화입니다. 그는 1945년 북서항로를 찾고 측량하기 위해 영국에서 출항한 지 오래지 않아 실종되었습니다. 이 초상화는 흥미로운 작품인데, 왜냐하면 이후 존 프랭클린의 부인 제이스 프랭클린이 뉴웨스트민스터로 여행을 왔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어빙 선장의 배를 타고 여행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피 크라코프트(존 프랭클린 선장의 조카)의 서신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그녀는 빅토리아에서 증기선 "마리아"를 타고 여행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를 소유한 증기선 회사의 회장은 어빙 선장을 좋은 증기선 선장이자 훌륭한 지휘관으로 추천했습니다.

유물에 대하여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가구는 이 집 가족의 것입니다. 긴 안락의자(소파)와 거기에 어울리는 두 개의 검은색 의자는 아마도 엘리자베스 어빙의 친정인 딕슨 가족에서 온 것이 분명하며, 1850년 혹은 1852년에 미주리에서 포틀랜드로 이어지는 오리건 산길을 통해 마차에 실려 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안락의자는 꺼끌꺼끌한 말털로 속이 채워져 있습니다. 두 개의 의자는 커버가 새로 씌워졌습니다. "가구의 길이가 작은 이유는 빅토리아 여왕이 4피트 10인치(147.32cm)였는데 그것이 그녀에게 딱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왕이 최고의 취향을 가졌다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라 했다." 녹색 의자들은 브릭스 가족의 것이며, 여성용 의

자는 팔걸이가 없는데 그것은 여성의 긴 치마 때문이었다. 여성이 의자에 앉을 때 발목을 드러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치마가 발을 가릴 수 있도록 의자는 짧아져야 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스톨은 단열이 되지 않는 차가운 바닥으로부터 발을 보호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두막집 그림은 윌리엄 어빙 선장의 딸 넬리가 그린 것입니다.

큰 응접실

큰 응접실은 작은 응접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거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방은 현대적인 거실과 같으며, 가족 모임과 같은 덜 형식적인 모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여기서 애프터눈 티를 마시곤 했고, 아이들은 음악 수업을 연습하며, 여자아이들은 앉아서 바느질, 자수, 십자수를 배우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일요일 오후를 이곳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저녁 식사나 예배 후에 성인들은 이 방을 사용하며 피아노 연주와 같은 그들만의 오락거리를 즐겼습니다. 이 방의 벽지와 카펫은 원래 그대로이며 1887년 개보수 때의 것입니다. 이전에는 석고벽이었을 것입니다. 천장 가장자리의 선박 로프 디자인은 윌리엄 어빙 선장의 해운 사업을 상징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 방은 윌리엄 어빙 선장이 1872년에 사망한 뒤 거의 확실히 장례식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마누엘라와 나오미도 이 방에서 피아노 개인 지도를 하곤 했습니다.

벽난로 위의 큰 금테 거울은 토머스 래셔와 그의 아내 메리 어빙에게 1874년 결혼 선물로 주어졌지만, 메리가 홀어머니로부터 이 집을 사들이고 이사 온 1884년경에야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위에 있는 인형은 일요일 인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도자기로 된 머리와 하부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인형은 아이들이 일요일에만 놀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현관/주 출입구

여기 천장은 높이가 12피트(약 3.7m)이며 계단은 23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현대의 8피트 천장은 13단입니다). 천장 메달리온은 이 집만의 맞춤 장식입니다. 이것은 윌리엄 어빙 선장의 스코틀랜드 유산을 상징하는 영경귀와, 어빙 선장이 신부를 만난 포틀랜드를 상징하는 장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 집의 현관과 위층 복도가 후기 빅토리아 시대로 복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20세기 중반 이후로 보지 못한 벽지가 드러났습니다. 2009년에는 박물관 직원이 보존 전문가인 시몬 보겔-호리지와 협력하여 이 집의 현관과 위층 복도에서 1897에서 1903년에 사용되었던 원래 벽지를 발견했는데, 벽지, 18인치(약 46cm)의 프리즈, 천장지로 구성된 3점의 세트였습니다. 작년에는 이 아름다운 벽지들은 문화유산 컨설턴트 겸 벽지 디자이너인 스텐튼 스타크에 의해 원래

집에서 사용되었던 원색과 일치하도록 정밀하게 다시 그려졌고 색상도 다시 맞춰졌습니다. 이것들은 영국에서 인쇄된 후 뉴웨스트민스터로 운반되어 설치되었습니다. 복도의 돌림띠와 현관의 천장 메달리온도 벽지의 보완물로서 원래의 색상 구성과 일치하도록 도색되었습니다.

➤ 위층으로 올라가기

육아방

이 방은 아마도 아이를 키우기 위한 방으로 사용되었고,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간이 침실로 쓰였을 것입니다. 브릭스 가족이 그 집을 차지했을 때 그들은 입주 유모를 한 명 고용했습니다. 그녀가 이 방에서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물에 대하여

밝은 색상의 가구는 브릭스 가족의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찻주전자는 사실 병든 사람을 위한 컵이다. 손잡이가 옆에 있어 아픈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날 필요 없이 주둥이로 약을 먹을 수 있게 되어있다."

침대 옆 벽에 걸린 그림은 "빅토리아 공주였을 때의 여왕, 4살"로, 영국 런던 델위치 갤러리의 그림입니다.

서랍장에 놓여 있는 파란색 병은 야간 등이며, 안에는 양초가 있습니다. 양초가 다 타고 나면 잠드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발치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인형은 1898년 화재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렉시 이완의 것이었는데, 여기 1898년 대화재 이전에 그녀의 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인형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안방

복도를 따라 발코니 쪽으로 내려가시면 오른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빙 선장과 그 부인이 같이 사용한 방입니다. 침대, 윗면이 대리석인 서랍장, 그리고 두 개의 의자를 포함한 이 방에 있는 몇 개의 가구는 어빙 가족의 것입니다. 이 집은 수돗물이 나오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방 안에 몇 개의 물병과 세면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 바깥에 있는 별채로 가기에는 너무 춥고 어두운 밤에만 사용되었을 요강도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이 방과 인접한 방, 즉 유모의 방을 연결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문은 집이 지어진 후에 추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는 출입구의 문틀과 그 옆에 있는 옷장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은 주철 난로는 원래 이 방에 있던 것인데 겨울에는 이 방을 쾌적하고 따뜻하게 유지시켰을 것입니다.

모든 침실마다 이런 옷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옷장 자체는 일반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주택에서는 흔치 않은 것인데, 그 이유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침실에 옷장이 있다는 것은 어빙 가문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소녀의 방

안방 바로 맞은편에는 "소녀의 방"이라고 불리는 다른 방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아이들이 자기 방을 가지는 것은 흔치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소녀들은 한 방을 공유했습니다. 이 방은 메리, 수잔, 엘리자베스, 넬리로 알려진 어빙 가족의 네 소녀가 함께 사용한 방입니다. 이 방은 일반적인 젊은 여성 방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꾸며져 있습니다. 방의 왼쪽에는 두 개의 장식장이 보입니다. 이 장식장들은 원래 옷장이었습니다. 한 개의 옷장은 이 방으로 열리고, 다른 하나는 옆방으로 열립니다. 이 옷장들은 도시에 이 집이 양도된 후 장식장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왼쪽의 장식장 안의 왼편에는 격자무늬 드레스가 있습니다. 이 드레스는 나중에 메리 브릭스가 되는 메리 어빙이 소유했으며, 드레스 오른편에는 드레스를 입은 메리의 사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드레스는 어빙 가족의 막내딸 넬리의 웨딩드레스입니다. 이 장식장 안에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입거나 사용했을 다양한 물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식장의 아래부분에는 다양한 머리빗이 보입니다. 머리 액세서리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에게 매우 중요했는데, 여성의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의 정점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머리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였으며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자연스러워야 하며 아름다움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떠한 인위적인 손길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장식장에는 여행용 트렁크 가방 위에 펼쳐진 파란색 드레스가 있습니다. 이 드레스는 어빙 부인이 어린 소녀였을 때 입었던 것입니다. 어빙 부인은 인디애나에서 태어났습니니다. 어빙 부인과 가족은 영구적으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정착하기 전, 오리건 열차를 타고 위험천만한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 드레스는 어빙 부인이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 입었던 드레스입니다. 또한 이 케이스 안에는 어빙 선장이 그의 배에서 사용했을 법한 다양한 항해 도구와 가족의 사진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장식장 안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빨간 머리카락을 가진 도자기 인형이 있습니다. 이 인형은 어빙 선장의 손녀딸 중 하나인 메리 에일린 콕스(수잔 어빙의 딸)의 것입니다. 이 인형은 메리 에일린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으며, 이는 어빙 선장의 머리카락과 같은 색상이라고 전해집니다. 장식장의 오른쪽 하단 구석에는 메리 에일린의 사진이 있습니다(머리카락의 길이를 주목하세요).

또한 이 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서랍장 왼쪽에 있는 분홍색 구형 물체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여성이 머리를 빗을 때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니다. 대신 이와 같은 용기에 수집하여 보관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을 보석이나 헤어 리스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방을 나올 때 오른쪽 문 옆에는 이와 비슷한 헤어 리스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어 리스는 가족 구성원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진 촬영은 가능했지만 매우 비쌌기 때문에 헤어 리스로 만들어진 머리카락은 종종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 남긴 유일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빙 가족과 브릭스 가족의 몇몇 소녀들은 메이 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메이데이 축제는 매년 열리는 지역 축제였습니다. 1871년 5월에는 엘리자베스 어빙이 메이 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존의 방

앞서 언급했듯이, 형제자매들은 종종 서로 침실을 공유했습니다. 어빙 가족에서 유일한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존은 운 좋게도 자기만의 침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방은 일반적인 젊은 남성의 방 모습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멀리 있는 벽에는 "옷장"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옷과 액세서리를 붙박이장 대신에 보관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서양의 남성 정장 모자와 탈착용 소매나 옷깃과 같은 젊은 남성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물건이 보입니다. 청결과 위생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에게 극히 중요했지만, 현대와 달리 옷을 자주 세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옷 중에서 가장 더러워지는 부분만을 청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셔츠의 옷깃과 소매가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셔츠에서 탈부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셀룰로이드라고 불리는 원시적인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재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총알 이야기

존의 방에서 나와 집의 뒤쪽으로 이동하면 문틀을 통과하게 됩니다. 문틀의 가운데 근처 왼쪽 부근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안을 보면 작은 금속 물체가 보입니다. 이것은 1896 년의 총알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추운 겨울밤 새벽 4 시경, 두 명의 남자가 브릭스 가족의 집으로 침입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브릭스 가족의 큰 아이 중 한 명인 베릴이 문틀 너머의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복도의 반대편에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계단을 지나갈 때 그녀는 낮선 남자가 자신을 올려다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아버지와 형제들을 깨웠으며, 몇 분 안에 모든 아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서서 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침입자 중 한 명은 당황한 나머지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한 토마스 브릭스 방향으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가족을 겁주기 위한 의도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총알은 빗나가 계단 꼭대기의 문틀에 박혔습니다.

가족은 이것을 수리하지 않았고, 총알은 오늘까지도 문틀에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두 명의 침입자에 대해서는, 그들은 집에서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약 80 달러 상당의 물건만 훔쳐

도망쳤습니다. 도둑들이 가져가려고 했던 물건 중 일부는 현관에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침입자들은 응접실 창문을 몰래 열어 집에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또한 아침에는 집 밖에서 스크루드라이버와 함께 볼스아이 랜턴의 버너와 기름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사들은 이 침입 사건을 지난주에 있었던 로얄 애비뉴에서 세 번의 침입 시도를 포함하여 밴쿠버 주변에서 일어났던 다른 침입 사건과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침입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1896년 12월 3일에 발행된 기사는 경찰의 후속 수사 성과에 대해 말해줍니다. 기사에 따르면, 브릭스 가족의 훔친 물건 중 일부가 어느 빈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 도미니와 밀러는 잠복 근무하다 새벽 6시에 남성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미니는 집에 제대로 들어오기 전에 용의자를 체포하려다가 "분명히 머리를 잃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는 도미니 경찰을 향해 총을 쏘고, 그의 머리 근처에서 발사되어 화약으로 인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9발을 더 쏘았습니다. 발사된 총알은 .44구경으로, 3일 전 토마스 브릭스를 향해 발사된 총알과 일치했습니다.

집의 뒤쪽

문을 통과하면 즉시 집의 이 부분이 다른 부분만큼 잘 지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빙 가족이 이 집을 지을 때 이곳을 주로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브릭스 가족이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이곳을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터놓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침실로 개조된 방이 보입니다.

복도 건너편으로 왼쪽에는 전체가 삼나무로 만들어진 린넨 옷장이 있습니다. 삼나무는 집나방의 천연 기피제이기 때문에 린넨 옷장의 건축 재료로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왼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욕실"이었는데, 화장실은 나머지 공간과 분리되어 별도의 공간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1906년 집이 드디어 수도에 연결되었을 때 화장실로 개조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공간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브릭스 가족이 작업을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알아차린 것처럼 이 공간에는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추가 계단이 있습니다. 이를 "하인 계단"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이 집에 살 때 요리사를 포함한 중국인 하인 3명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가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 계단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그것이 매우 튼튼하게 지어진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두 번째 계단이나 하인 계단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대로 건설하는 것은 비교적 드물었는데, 이 계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단이 매우 튼튼하게 지어져 있으므로 가족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부엌

계단을 내려와 뒷문을 지나면 왼쪽에 첫 번째 출입구가 부엌입니다. 여기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주철로 만들어진 나무와 석탄 화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덕은 원래 브릭스 가족의 것으로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화덕의 앞면에는 온도계가 달려 있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여성은 열을 감지하여 온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화덕은 요리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운 날에 집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지면 모든 요리는 뒤 베란다나 지하실에 위치한 여름 부엌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부엌 곳곳에서 여러분은 부엌 식탁 위에 버터 만드는 기계와 계란 거품기를 포함한 다양한 부엌 도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방 탁자 위에는 초보적인 빵 기계(크랭크 손잡이가 달린 금속 양동이처럼 보이는)와 기계식 칼 세척기도 있습니다. 이 세척기는 측면에 있는 크랭크 손잡이로 작동합니다. 칼날은 위쪽에 삽입되며 손잡이를 돌리면 기계 내부의 솔이 회전합니다. 솔에는 칼날을 다듬는 연마용 혼합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인을 도와주는 도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

연결된 문을 지나면 식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스타일로, 방의 아랫부분에 있는 목재 부분은 어둡게 니스칠 되어 방을 작아 보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보이는 파란색 페인트는 박물관이 된 후에 칠해진 것입니다. 콜롬비안 신문에는 이 방에서 열리는 호화로운 파티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리 브릭스는 이곳에서 많은 만찬 파티와 사교적인 차 시간을 가졌으며, 이는 보통 그녀가 선호하는 자선 단체에 이익을 주었습니다.

주식은 정오에 제공되었을 것인데, 사업과 학교가 몇 시간 동안 문을 닫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상당히 풍성하게 식사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는 동안, 집 주인은 테이블 상석의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고기를 썰었습니다. 주인집 여성은 테이블 반대쪽 끝에 앉았으며 채소를 서빙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귀빈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 그는 집주인의 오른쪽에 앉아 가장 먼저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각 사람이 차례로 식사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받은 후에는 식전 기도를 올렸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여성들은 큰 응접실로 물러났을 것이고 남성들은 남아서 포트 와인, 과일 및 견과류를 먹으며 사업 문제를 논의했을 것입니다.

이 방에는 옷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의 펜트리(식기장)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방은 원래 지금의 전기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원래 주방에서 식사를 나르는 하인들이 이용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집사를 두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서재

식당을 나와서 아래층의 중앙 복도로 이동하면, 오른쪽 첫 번째 방이 서재입니다. 이 방은 사무실

및 신사의 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여성은 청소를 제외하고 이 방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아치형 통로는 1900년대 초에 개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방에 간단한 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커튼은 통풍 커튼이라고 불리며, 1990년대에 박물관 직원들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아직 브릭스 가족이 이러한 커튼을 설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커튼은 벽난로나 화덕으로부터 열을 유지하고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 방에는 여러 개의 원주민 바구니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구니는 원주민 여성들이 집마다 판매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헨 옷과 교환되었거나 심지어 커피, 차, 설탕과 같은 물품과 교환되었습니다. 메리 브릭스는 이러한 바구니를 좋아했고 많이 소유했습니다. 그녀는 이 바구니에 싱싱한 꽃을 담아 집 안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메리는 또한 1912년 베릴과 월터의 결혼식 피로연 때 이 바구니를 사용하여 결혼 선물을 집안에 전시했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선물이 전시된 큰 응접실에서는 장미꽃이 담긴 그릇들이 선물 사이에 놓여있었으며, 복도와 서재에는 원주민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아쉽게도 우리는 메리의 바구니 컬렉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사진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카무라라는 일본 사진작가가 찍은 것이며, 서재를 바라보는 당신의 뒷벽에 사진의 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 뒤쪽에는 이탈리아 출신인 루카 마드라씨가 제작한 1887년 버전의 "Premier Chagrin" (첫 번째 슬픔) 조각상이 내장된 램프가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전기가 집에 설치되었을 때 브릭스 가족에 의해 1914년에 집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머니의 방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방은 할머니의 방이며, 서재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과부인 엘리자베스 어빙이 집을 딸인 메리 브릭스에게 판매하고 포틀랜드로 돌아간 후, 다시 이 집을 방문할 때는 이 방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녀의 방문은 자주 있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이 방은 나이 든 여성이 사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또한, 9명의 아이로 가득 찬 집에서 이 방이 그녀에게 훨씬 조용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방은 종종 "오전용 거실"이나 "아침용 식당"로 불리기도 했을 것이며, 가족은 가벼운 식사를 이곳에서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방은 차 한잔 마시는 모임을 위해서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이 방은 "오전용 거실"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손님이 없는 동안 주인집 여성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아이들은 이 방에 들어갈 수 있으며, 현대의 가족실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은 이 방을 활용하여 손님들이 빅토리아 시대의 스타일로 차와 가벼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어머니의 날 티 파티를 개최합니다.

결론

이것으로 저희 투어는 끝입니다. 서재 맞은편 테이블 위에 있는 손님용 서명장에 시간을 내어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서 박물관에 대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어빙 하우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